

아·태지역 최대 규모 신안 해상풍력 단지 뜬다

총 10개 구성 해상풍력...3.2GW 규모 집적화단지 지정
민간투자 20조원, 3만여개 일자리...해상풍력 새 이정표

신안군이 아태지역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에 지정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이정표를 세웠다.
신안군은 지난 22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
의·의결을 거쳐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
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신
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입지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를 발굴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핵심 과제
로 추진했다. 신안군은 전남도와 협력 어업인과 송
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집적화단
지가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총 10개의 단지로
구성되며, 사업은 2033년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규
모는 3.2GW에 달하며, 2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안군을 넘어 대한민국 해
상풍력의 발전과 해상풍력 공급망 확보에 큰 전환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따
라 2021년부터 전국 최초 햇빛연금을 지급하여 현
재 누적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전체 군민의 42%
인 16341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은도 해상 전남해상풍력(주) 풍력단지가 완공돼
올해 10월경부터는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신안군에
서 계획하고 있는 8.2GW 완료 시 군민 전체 1인당
월 50만원 지급 목표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는 주민과 어업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
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발전단지 준공 후에는 지
역주민의 수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0.1의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지자체
에 부여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하고, 송전 계통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해상풍력 발전사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어 환영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신안 해상풍
력 집적화단지 3.2GW 지정은 국내에 해상풍력 공
급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
체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자은도 일원 전남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화 전환 ‘시동’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연구 단지 조성·민간 투자 유치 추진

완도군이 최근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2026~2030)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
고 고부가가치화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완도군은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지역 해양바
이오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태동기에 있
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권역별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완도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기반
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되는
미래 산업으로 핵심 원료인 해조류는 해양바이오
산업 원료별 시장 중 가장 비중이 크고 빠른 성장
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국내 시장에서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김, 미역, 톳 등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
대비 52%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해조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원물 생산 또는 조
미 가공 등에 머물러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또는 건강 기능성 식품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
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정책, 기술, 시장,



완도군이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2026~2030)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투자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여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 형태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해양바이
오 등 관련 정책을 분석해 완도군을 전국 단위의
해조류 소재 공급 기지로 구축하고자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조성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

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해조
류를 활용해 군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해조류
산업과 관련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해양바
이오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고품질 유자 생산 현장 컨설팅



진도군이 최근 유자 농가 육성과 고품질 유자 생
산을 위해 진도유자연구회를 대상으로 유자재배
기술 이론교육을 한 후 지산면과 임회면 일원에서
현장 상담·자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현장 상담·자문은 고품진 농업기술센터 유
자연연구소 운영부 농업연구사를 초빙해 진행했으
며 유자나무 특성과 생육 시기별 전지·전정 방법,
수형 관리, 시비법 등 실질적인 핵심기술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발생 증가, 품질 저하 문제, 농촌 고령화
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해결 방안을 주요 주제로 유
자연구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열린 질의응답과
현장 토론회가 이어졌다.
유자연구회 한 회원은 "이번 현장 상담·자문을
통해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술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
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 가축시장 5월8일 재개장...구제역 폐장 2개월만

해남군이 오는 5월 8일 구제역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지역 송아지 물량 해소와 축산농가 실질소득 향
상을 위해 5월 10일 특별 가축시장을 개장한다.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방역 체계와 시설
전반을 정비하고 2개월여 만에 재개장하게 됐다.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구제역 발생 직후 가
축시장 정소·세척·소독 조치를 마쳤다.
구제역 기간 동안 원활한 가축 거래를 위해 군에
서 지원한 LED 전광판, 통합제어시스템 등도 구
축해 가축 경매 응찰·스마트 경매 안내 시스템 등
을 도입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도 마련했다.
해남군은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농가가 우시장 진입 시 구제역 의심 증
상 여부 확인,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축시장 진입



가축 경매 응찰·스마트 경매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해남군 제공>

차량 내외부 소독을 거쳐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축협과 협력해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5월 3~6일 'K-관광섬 흑산도 탐조대회'

선상탐조·가락지부착조사 참관

신안군이 오는 5월 3~6일 흑산도에서 3박 4일 일
정으로 'K-관광섬 흑산도 탐조대회'를 개최한다.
흑산도는 국토 최서남단 해역에 자리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370여 종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국내 최대 철새 중간 기착지다.
흑산도에는 국내 최초 조류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가 2005년 설립됐고 우수한 새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는 철새박물관과 새공예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 탐조 전문 책방 1호로 탐조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수원의 '탐조책방'이 진행한다

말파 탐조와 더불어 흥도 선상탐조, 가락지부착조사 참관과 교육, 탐조 그림책 그리기 등 다채롭게 열린다.
신안군은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기착지인 흑산면에 다양한 철새들에게 친환경 조와 수수 등을 재배 후 수확하지 않고 먹이와 휴식지를 제공하는 상생을 위한 철새먹이경작지 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도는 국내 최대 420여 종이 관찰된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로 탐조관광에 적합한 섬이다"며 "K-관광섬 흑산도 탐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탐조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23일 영광 한마음 치매극복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캠페인' 성황

주민 500여명 참여 건강 체험

영광군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캠페인'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치매 예방 체조와 걷기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형 건강 홍보관으로 구성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걷기 캠페인은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을 출발해 우산공원 일대를 도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밝기운 가득한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

한 치매 예방 걷기를 함께했다.
행사장에는 ▲치매예방교육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구강·금연·비만 관리 예방 교육 ▲기침 예절 및 손 씻기 교육 등 여러 건강 체험관이 운영됐다. 특히 영광군공립요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함께 참여해 치매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걷기를 통해 치매 예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걸으니 더욱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9개 읍·면 470개소 39억원 투입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다.
무안군은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 국비를 포함 총 39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70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설치하면 연간

약 60만원(월 5만원) 이상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무안군은 2021~2024년 9개 읍·면에 총 1683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은 높여 군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